

비즈 프리즘 | 국산게임, 해외시장 진출 '순항'



국산 모바일 게임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 정식 출시한 펠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북미와 유럽 등 120여 개 국에 진출한 컴투스의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빌의 '탈리온'(왼쪽부터),

사진제공 | 펠어비스, 컴투스, 게임빌

남다른 IP 파워... '게임 한류' 열린다

(지적재산권)

'스카이랜더스' 43개국 RPG 1위
다진출 '검은사막 모바일' 인기몰이
순차 출시한 '탈리온', 러시아 호응

2019년 초반 국산 게임들의 해외 진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서 서비스를 시작한 국산 모바일게임들은 현지 인기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컴투스가 2월28일 북미와 유럽 등 120여 개 국에 출시한 역할수행게임(RP

G)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4일 기준 주요 국가에서 인기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프랑스와 독일 구글플레이에서는 각각 게임 인기순위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43개국에서 RPG 장르 인기 1위, 68개국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앱스토어에서도 49개 RP G 장르 톱10에 오르는 등 초반 흥행 기세가 매섭다. 원작인 액티비전의 대작 콘솔게임 '스카이랜더스'의 지적재산권(IP)이 가진 파워에 컴투스의 서비스 경쟁력이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이다.

2월26일 일본에서 출시한 펠어비스

의 '검은사막 모바일'도 초반 인기가 뜨겁다. 일본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모두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다. 매출 순위에서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PC게임 '검은사막'의 IP를 활용해 제작한 모바일 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앞서 출시한 국내와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원 월드 국가별 순차 출시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게임빌의 '탈리온'은 2월28일 서비스를 시작한 러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시작과 함께 러시

아 구글플레이의 RPG 장르 인기순위에 1위에 올랐다. 또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양쪽에서 동시에 매출순위 50위권에 진입했다. 진영전 전투(RvR)에 특화된 모바일 MMORPG인 '탈리온'은 먼저 공개된 동남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장에 등장한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모바일 런칭 RPG '에픽세븐'도 2월 들어 북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매출순위 10위권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5일

코스피지수	2179.23	↓	-11.43
코스닥지수	747.95	↓	-0.12
日 닛케이 지수	2만1726.28	↓	-95.76
中 상하이 종합	3054.25	↑	+26.6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3	↑	+0.02
환율 (원·달러)	1126.0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6563.92	↓	-73.14

경기 둔화에 구조조정 M&A 활발

기업결합 건수 최다...금액은 ↓

지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지만 기업 결합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5일 발표한 '2018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기업결합 전체 건수는 702건으로 전년(668건) 대비 34건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486조6000억 원으로 전년(509조4000억 원) 대비 2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건수는 570건으로 전년 대비 56건 늘었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43조6000억 원으로 전년(53조 8000억 원) 대비 10조2000억 원이 줄었다. 대형 기업결합 대신 소규모 인수·합병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결합금액이 5조 원을 넘는 대형 기업결합은 없었다. 반면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199건을 기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아 전기차 중 최장 주행, '쏘울 부스터 EV' 출시

1회 충전 386km...예약 충전 설정 가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능도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부스터 EV'가 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전기차 신차가 나올 때마다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다. 쏘울 부스터 EV는 1회 충전으로 386km를 주행할 수 있다. 기아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다.

기존 쏘울 EV(30kWh) 대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64kW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고,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부하 토크 영역의 효율을 증대시킨 모터를 장착해 주행거리를 늘렸다. 출력은 80% 이상 향상된 150KW다.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통합 주행모드 제어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연비를 극대화하는 에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4가지 주행

모드를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EV모델에만 적용된 첨단 사양에도 눈길이 간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풀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등을 갖췄다.

전기차를 운행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충전 속도를 도와주는 편의 기능도 갖췄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출발시간, 목표충전량(50% ~100%), 요금, 시간대 등 목적지를 고려한 예약 충전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을 시작한 뒤 목표충전량에 도달하면 스스로 충전을 종료하는 기능도 있다.



▲기아차 '쏘울 부스터 EV'.

SUV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차상태에서 공조, 멀티미디어 등 편의장치를 장시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가 있어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4630만 원, 노블레스 4830만 원(세제혜택 후)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조양호 한진 회장, 계열사 6곳 경영서 퇴진

대한항공·한진칼·한진만 유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현재 임원을 맡고 있는 9개 계열사 중 6곳에서 물러난다.

대한항공은 5일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안을 의결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신 그룹 핵심 계열사를 제외한 전 기업에서 미등기임원을 포함해 모든 직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정성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등 7개사 등기임원을 맡고 있고 한국공항, 갈호텔네트워크 등 2개사는 비등기임원을



조양호 회장

한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항공전문가 한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임안 가결 이유를 밝혔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안과 박남규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는 3월27일 개최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물산 제3회 sdfd 수상 디자이너 모집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25일까지 '제3회 sdfd(스몰에스에프디에프) 수상 디자이너' 지원자를 모집한다. 2005년부터 진행한 SFDF와 별도로 2017년 출범한 상급 1억 원 규모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수상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

는 브랜드 론칭 5년 이하의 재능있고 창의적인 디자이너다. 지원 접수는 sdfd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5월 사내 디자인실장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의 후보를 선정하며 6월 대중 참여형 심사를 연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경제현장.jpg

“포터리반 키즈로 아이방 꾸미세요”



현대리버트가 포터리반 키즈의 봄 신상품 80여 종을 선보였다. 침대 아래에 아이를 위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캠프 로우 로프트 침대, 공룡을 수놓은 침구 워렌다이스 쿼트 이불 등이 대표 제품이다. 24일까지 캠프 로우 로프트 침대 구매 시 매트리스를 5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리버트

데이터 경제

한국행 항공권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 톱10

원스톱 여행 솔루션 사이트 '카약'이 자체 예약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세계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이어 일본 홍콩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프랑스가 8위에 올랐다. 반면 검색 증가율은 222%가 늘어난 일본이 1위였다.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등이 검색 증가율이 세자릿 수를 기록해 이들 국가에서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순위	국가	검색증가율
1	중국	106% ↑
2	일본	222% ↑
3	홍콩	162% ↑
4	필리핀	55% ↑
5	말레이시아	64% ↑
6	대만	58% ↑
7	싱가포르	119% ↑
8	프랑스	80% ↑
9	베트남	113% ↑
10	태국	115% ↑